

금강산 관광 위험인지와 관광의도에 관한 연구

김난영(선문대학교)* · 윤황(선문대학교)**

논문 요약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는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주요 잠재 관광객이 지각하는 관광의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키고, 이들을 관광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을 조사하였다. 둘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이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관광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요인은 사회·안전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적 위험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신체적 위험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출된 4개 요인 중 기능적 위험지각과 신체적 위험지각 요인이 관광의도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강산 위험지각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공에 따른 관광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금강산, 관광 위험인지, 관광의도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시작된 남북 간 평화적 상징사업으로 2008년 관광객 저격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어 6년 가까운 현 시점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 유지와 관련 금강산 관광대가에 대한 북한의 군비전용 우려, 사업의 경제성 부족, 관광객 억류 및 사망과 같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본 사업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은 관광이 정치적으로 분단된 국가 간 정치적 이해를 높이고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관광의 활성화와 함께 단계별 성장을 거듭하여 결국에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¹⁾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감지할 수 있는 변화적 성과를 이끌었던 만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의 안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된다고 하여도, 잠재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 높은 위험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관광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수행되고 형태가 없고 선행적인 사용이 불가한 등의 관광 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²⁾ 잠재 관광객은 관광 목적지 결정에 있어 다른 활동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금강산 관광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출된 위험지각 요인이 관광행동과 관련 어떤

1) Butler, Richard W. and Baodi Mao, "Conceptu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ourism between Partitioned State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1, no.1, 1996, pp. 625~634.

2) Kotler, Philip, John Bowen and James Makens, J.,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2e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Inc, 1999, pp. 42~44.

결과적 성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을 조사하였다. 둘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이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과 관광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요인 및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차이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위한 준비 시점에서 잠재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위험적 차원을 파악하고 관광 의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은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과 체결한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합의서 체결로 인해 1998년 11월 18일 유람선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해로를 통해 실시되었던 관광은 2003년 9월에는 육로 관광이 실시되기에 이르렀으며, 2006년 6월에는 관광코스가 좀 더 다양해지면서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보다 많은 관광수요를 유도하였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까지 총 196만 명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여, 남한 인구의 약 4%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북한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형태의 민간 차원적 사업과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 평화 향상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칭해지기 충분하였다.

〈표 1〉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만명)

연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수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6

출처: 이해정, “현안과 과제: 금강산 관광의 의미 재조명.” 『현대경제연구원』 제14권 제10호, 2014, p.1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관광이 재개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진행시 발행한 주요 사건·사고, 그에 따른 결과적 조치를 정리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크게 몇 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 추락사고, 고각붕괴 등의 시설 안전사고나 관광객 심장마비 등의 건강문제 발병으로 인해 관광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치로 관광이 중단되는 불상사 없이 관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수습되었다. 둘째, 금강산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아산 기업의 정몽헌 회장 자살 사망 특수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 인물을 추도한다는 의미에서 관광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셋째, 태풍이나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및 전염성 질환 같은 질병발병은 안전 관광을 위해 최대 약 2달간 관광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자연발생적 위험이 해결되자 바로 관광이 재개되었다.

넷째, 관광객 언행 부주위로 인한 억류사건과 관광객 행동 부주위로 인한 총격 사망사건은 관광중단이 쉽게 재개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광객 억류사건은 사건관련 해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후 40일 만에 관광이 재개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광객 사망사건은 2014년 6월 현재 약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관광중단이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시설이나 건강문제,

일시적 자연재해 및 전염질병 문제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로 관광 사업에 얼마간의 영향을 주었을 뿐 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이념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관광객의 언어적 제한과 행동적 제한은 그것을 넘어섰을 때 사업의 존속을 뒤흔드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항은 북한 관광의 특수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며, 잠재 관광객의 관광 목적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위험지각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금강산 관광 진행 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및 결과

일자	사건 및 사고	결과
1999.6.	관광객 민영미씨 북한 관리원에게 귀순 유도 발언한 것으로 오해 6일간 억류 후 북한 요구 사죄문 쓰고 풀려남	40여 일간 관광중단 -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합의서' . '금강산 관광지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 각각 체결 후 1999.8.5. 관광재개
2002.9.	태풍 루사(RUSA)로 인한 피해	10여 일간 관광중단
2003.4.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60여 일간 관광중단
2003.8.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자살	1주일간 관광중단
2004.10.27	60대 관광객 계곡에 빠져 사망	-
2005.6.5.	관광객 정모씨 심장마비 추정 사망	-
2005.12.	현대직원 정씨 교통사고 내 북측초병 1명 사망 2명 중상. 정씨 약 한달 간 조사목적으로 억류. 40만 달러 손해배상	-
2006.2.27.	관광객 오모씨 만물상서 사망	-
2007.7.20.	관광버스 만물상서 전복하여 대학생 5명과 현대아산 직원 1명 부상	-
2007.8.10.	금강산 수해	일시 관광중단
2007.10.15.	구룡폭포 인근 무룡교 와이어 끊겨 20여명 추락해 3명 중상	-
2008.7.11.	관광객 박왕자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2014년 6월 현재까지 중단

출처 : 김기동, “금강산 관광 안전비상.” 『세계일보』 2007년 10월 16일; 박민식, “금강산 관광 사건·사고들.” 『한국일보』 2008년 7월 12일; 심규석, “금강산 관광 10년 사건, 사고 13건..23명 사망.” 『세계일보』 200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연구자 재작성.

2. 금강산 관광과 위험지각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선택의 상황에 처하며, 실질적인 구매를 결정하기 전까지 여러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행동은 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비교분석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렇듯 소비자는 그들의 선택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확신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지각(perceived risk) 하게 된다.³⁾ 이러한 위험지각은 객관적 판단기준에 근거하기 보다는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의 특성이나 강도로 판단되는 주관성이 강한 개념이다.⁴⁾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평가 행동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을 소비자의 걱정(worries)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⁵⁾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은 모두 같은 수준에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적 상황, 선택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Battman은 선택하고자 하는 상품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상품군의 특정상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상품이 기술적으로 복잡 정교할 때, 상품에 대한 상표를 자신을 가지고

3) Bauer, Raymond A.,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In Hancock, R.S.(ed.), *Dynamic Marketing for a Changing World*,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Chicago, 1960, p. 390.

4) Cox, Donald F. and Stuart U. Rich, “Perceived Risk and Consumer Decision-making: The Case of Telephone Shopp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 no.4, 1964, pp. 32~39.

5) Larsen, Svein, Torvald Øgaard and Wibecke Brun, “Backpackers and Mainstreamers: Realities and Myth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8, no.2, 2011, pp. 690~707.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상품에 있어 상표별 품질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상품이 고가격 일 때, 개인적 차원에서 상품 선택의 중요도가 클 때 위험의 지각은 높아진다고 보았다.⁶⁾ 즉,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비자의 관광활동에서는 보다 높은 위험을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관광이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행해진다는 측면과 관광과 같은 서비스 상품이 무형성(intangibility), 불가분성(inseparability), 이질성(variability), 소멸성(perishability)의 특성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광객은 이질적 환경을 지닌 관광 목적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관광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은 실질적인 관광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또한, 관광행위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⁸⁾을 지니고 있어 다른 소비 행동 보다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선택적 행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성은 더 높아 진다.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실시된 위험지각 선행연구는 우선적으로 어떤 유형의 위험을 지각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 목적지 결정 시 지각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위치적 위험, 신체·사고 위험, 의료안전 위험, 관광시설기능 위험, 경제적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6) Battman, James R. "Perceived Risk and its Components: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0, no.2, 1973, pp. 184~190.

7) Philip Kotler, John Bowen and James Makens,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2e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Inc. 1999, pp. 42~44.

8) Ibid, pp. 107~133.

9) 김홍범·윤진영·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pp. 67~81.

서는 신체적 위험, 시간손실위험, 비용적 위험, 기능적 위험, 성과적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해외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심리적 위험, 경제적 위험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한편, 중국이라는 특정 관광 목적지로 떠나는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국 관광과 관련 시설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문화적 위험, 건강적 위험, 신변 안전적 위험 요인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미국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적 위험, 안전적 위험, 경제적 위험, 정치적 위험, 언어적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또한,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외관광과 관련 건강, 정치 불안정, 테러리즘, 낯선 음식, 문화적 장벽, 국가 정치적 종교적 교리, 범죄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홍콩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염성 질병, 테러공격, 자연재해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타이완의 해외관광객의 경우는 재정적, 성과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한편, 특정 교통시설인 항공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항공여행 시 인지하는 위험지각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재정적, 기능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시간적 위험을 지각으로 하며, 특히, 재정적 시간적 위험을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0)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 137~152.

11)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12) 곽효용·김형곤·이수진, “친숙도가 선호도, 위험지각,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pp. 378~388.

13) 노정희, “관광목적지로서의 지각된 위험과 관광지 이미지가 한국 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 2008, pp. 169~188.

14) Lepp, Andrew and Heather Gibson, “Tourist Roles, Perceived Risk and Internation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0, no.3, 2003, pp. 606~624.

15) Law, Rob, “The Perceived Impact of Risks on Travel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8, 2006, pp. 289~300.

16) Lepp, Andrew, Heather Gibson and Charles Lane, “Image and Perceived Risk: A Study of Uganda and Its Official Tourism Website,” *Tourism Management*, vol. 32, 2011, pp. 675~684.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관광 목적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지각하게 되는 해외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특정 관광 목적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목적지 지정 없이 광범위하게 해외관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광 시 이용하는 항공교통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도출된 위험지각요인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었지만 특징적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신체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지각하고, 대부분 사회심리적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능적 위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반면,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두 기능적 위험을 지각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관광객의 경우 어느 정도 정치적 위험을 지각하지만,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몇몇 연구에서는 시간적, 성과적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도출된 위험지각요인을 금강산 관광의 특징과 연계해 사용하였다.

3.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의도

관광 의도(travel intention)는 실제 관광행동을 하기 바로 전 단계로, 관광에 대한 몰입과 관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향을 강조한다. 관광 의도는 동기를 행동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정신적 과정의 성과물이다.¹⁸⁾ 즉, 관광 의도는 실제 관광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미래 행동을 유도하므로 잠재 관광객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17) Boksberger, Philipp E., Thomas Bieger and Christian Laesser,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erceived Risk in Commercial Air Travel," *Air Transport Management*, vol.13, 2007, pp. 90~96.

18) Jang, SooCheong, Billy Bai, Clark Hu and Chi-Mei Emily Wu, "Affect, Travel Motivation, and Travel Intention: a Senior Market,"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 33, no.1, 2009, pp. 51~73.

나아가 때로는 의도개념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행동개념보다 더 효과적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선호 측면보다 시간부족이나 대안부족과 같은 제약적 사항에 영향을 받으므로, 많은 경우 고객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있어 행동보다는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관광객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²⁰⁾

관광에 대한 위협지각은 이러한 관광 의도 형성 과정에서 관광 의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의도 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콩의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염성 질병, 테러공격, 자연재해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관련 위험을 높게 지각한다면 관광 목적지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타이완의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정적, 성과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며, 관광객이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관광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한편, 미국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국관광에 대해 건강적 위험, 안전적 위험, 경제적 위험, 정치적 위험, 언어적 위험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면 한국 방문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위험을 높게 인지할수록 방문의사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19) Day, George S., "A Two Dimensional concept of Brand Loyalt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9, 1969, pp. 29~35.

20) Jang, SooCheong, Billy Bai, Clark Hu and Chi-Mei Emily Wu, "Affect, Travel Motivation, and Travel Intention: a Senior Market,"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 33, no.1, 2009, p. 52.

21) Law, Rob, "The Perceived Impact of Risks on Travel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8, 2006, pp. 289~300.

22) Lepp, Andrew, Heather Gibson and Charles Lane, "Image and Perceived Risk: A Study of Uganda and Its Official Tourism Website," *Tourism Management*, vol. 32, 2011, pp. 675~684.

23) 노정희, "관광목적지로서의 지각된 위험과 관광지 이미지가 한국 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 2008, pp. 169~188.

다음으로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외 관광 시 신체적 위험, 기능적 위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각을 높게 할수록 관광 상품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또한, 해외관광을 계획 중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간손실 및 신체적 위험을 높게 지각하게 하는 관광 상품 일수록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어지는 관련연구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시 신체사고 위험을 높게 지각 하면 해외여행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결국 해외관광의도를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 관광객들은 해외 관광 목적지에 대해 인지하는 다차원적 위험지각이 관광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국내 관광객들은 몇몇 위험요인이 관광의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신체적 위험지각에는 공통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 관광객의 경우 해외 관광 시 보다 다양한 위험적 사항들을 고려해 관광 선택행동을 하고, 국내 관광객의 경우 신체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적은 범위의 위험지각 요인들을 고려해 관광 선택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의도 간 영향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은 관광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4)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25)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 137~152.
 26) 김홍범·윤진영·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pp. 67~81.

Ⅲ.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본 연구의 설문지는 관광위험지각, 관광의도,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관광위험지각에 대한 측정은 관광위험관련 선행연구,²⁷⁾ 현대아산 홈페이지,²⁸⁾ 금강산 관광 선행연구²⁹⁾ 및 기사³⁰⁾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특성을 반영하여 측정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총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항목에 대한 측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관광 의도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된다면, 금강산 관광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에 대한 측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관광경험, 통일 및 북한관련 과목 수강경험은 경험이 있다, 없다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성별은 여자, 남자,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은 문과계, 이과계로 구분한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27) 곽효용·김형곤·이수진, “친숙도가 선호도, 위험지각,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pp. 378~388; 김홍범·윤진영·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pp. 67~81;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 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137~152; 노정희, “관광목적지로서의 지각된 위험과 관광지 이미지가 한국 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 2008, pp. 169~188;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Lepp, Andrew and Heather Gibson, “Tourist Roles, Perceived Risk and Internation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0, no.3, 2003, pp. 606~624; Lepp, Andrew, Heather Gibson and Charles Lane, “Image and Perceived Risk: A Study of Uganda and Its Official Tourism Website,” *Tourism Management*, vol. 32, 2011, pp. 675~684; Law, Rob, “The Perceived Impact of Risks on Travel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8, 2006, pp. 289~300.

28) 현대아산 홈페이지 <http://www.hyundai-asan.com/> (검색일: 2014. 6. 1.).

29) 김성우,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이용한 관광지 매력성 평가: 금강산 관광을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0권 제1호, 2008, pp. 101~115.; Lee, Choong-Ki, Yoo-Shik Yoon and Seung-Kon Le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s: The Case of the Korean DMZ,” *Tourism Management*, vol.28, 2007, pp. 204~214.

30) 심규석, “금강산 관광 10년 사건, 사고 13건..23명 사망.” 『세계일보』 2008년 11월 16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남소재 4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배포 및 취합은 설문 전 설문의 취지를 분명히 설명한 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설문의 회수와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97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분석에는 SPSS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설문 문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 위험 인지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파악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 위험 인지와 관광의도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 관광경험여부, 통일 및 북한관련 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관광위험 인지와 관광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64명(66.5%)으로 남자 133명(33.5%)보다 많았다. 학년은 2학년이 133명(33.5%), 1학년이 92명(23.2%), 3학년이 88명(22.2%), 4학년이 84명(21.2%)으로 나타나 2학년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대체적으로 학년별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크게 두 계열로 구분하여 문과계열이 284명(71.5%)으로 이과계열

103명(25.9%) 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강산 관광경험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372명(93.7%)이고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25명(6.3%)으로 관광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통일 및 북한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에 있어서는 70명(17.6%)이 수강경험이 있고, 327명(82.4%)은 수강경험이 없어 대학생 다수가 수강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광 위험지각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

본 연구의 관광위험지각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직각회전(Varimax)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2개 항목을 제외한 총18개 항목이 <표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위험인지는 총4개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은 그 항목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안전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사회·안전적 위험' 요인은 금강산 관광 시 남한과 상이한 사회정치 체제와 분단관계에 있는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행동적 불편과 신변적 심리적 불안에 의해 지각되는 위험을 의미 한다. '기능적 위험' 요인은 금강산 관광 시 이용하는 각종 시설적 기능의 부실로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의미 한다. '신체적 위험' 요인은 금강산 관광 시 현지 시설이나 자연현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관광객의 신체나 건강을 해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의미 한다. '경제적 위험' 요인은 금강산 관광 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거나 투자한 비용 대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의미 한다.

〈표 3〉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항목	표준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설명력 (%)	크로바 알파값	평균
사회·안전적 위험	신변문제 발생 우려	.771	6.099	32.101	.818	3.753
	북한 사회정치적 불안 우려	.759				3.985
	행동 제약요인 부담 우려	.681				3.874
	북측 종사원 오해나 마찰 발생 우려	.648				3.506
	범죄 발생 우려	.648				3.722
	사고 발생시 고충처리 우려	.631				3.792
기능적 위험	쇼핑시설 부실 우려	.823	2.041	10.740	.872	3.661
	식당 음식시설 부실 우려	.813				3.494
	숙박시설 부실 우려	.813				3.602
	편의시설 부실 우려	.810				3.748
신체적 위험	자연재해 발생 우려	.828	1.927	10.140	.818	2.702
	교통사고 발생 우려	.781				2.882
	질병 등 건강상 문제 발생 우려	.755				2.825
	이용시설 안전사고 발생 우려	.613				3.239
경제적 위험	높은 여행상품 비용 부담 우려	.816	1.666	8.770	.765	3.221
	여행경비 대비 여행 만족도 우려	.702				3.136
	선택 관광비용 부담 우려	.700				3.255
	달라나 금강산 카드 사용 불편 우려	.688				3.584

KMO=.865, Bartlett' s test=3471.062 (p=.000)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도 다차원적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범주의 요인이 선행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본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31) 곽효용·김형곤·이수진, “친숙도가 선호도, 위험지각,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pp. 378~388.; 김홍범·윤진영·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pp. 67~81.;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 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 137~152.; 노정희, “관광목적지로서의 지각된 위험과 관광지 이미지가 한국 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 2008, pp. 169~188.;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지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Lepp, Andrew and Heather Gibson, “Tourist Roles, Perceived Risk and International Tourism,” Annals of

살펴보면, 사회·안전적 위험요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한 사회정치적 불안과 관광 시 행동제약요인에 대한 부담을 가장 높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능적 위험,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순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중 매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이유 등 북한의 부정적 실상을 전해 들어 왔으므로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현 실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가장 높은 위험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의 기본적인 선택 사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다소 높은 관광비용은 관광의 기능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 대한 불확신성을 높여 평균이상의 위험을 지각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이 차량 부족으로 교통적으로 여유로우며, 질병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신체적 위험에 대해 평균이하 수준의 위험을 지각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의도와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이 금강산 관광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은 관광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¹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 요인 중 사회·안전적 위험 및 경제적 위험 요인은 금강산 관광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적

Tourism Research, vol.30, no.3, 2003, pp. 606~624; Lepp, Andrew, Heather Gibson and Charles Lane, "Image and Perceived Risk: A Study of Uganda and Its Official Tourism Website," Tourism Management, vol. 32, 2011, pp. 675~684; Boksberger, Philipp E., Thomas Bieger and Christian Laesser,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erceived Risk in Commercial Air Travel," Air Transport Management, vol.13, 2007, pp. 90~96; Law, Rob, "The Perceived Impact of Risks on Travel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8, 2006, pp. 289~300.

및 신체적 위험지각 요인은 금강산 관광의도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강산 관광 시 기능적 위험 및 신체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금강산 관광의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하게 신체적 위험지각 요인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또한,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 도출되었던 기능적 위험지각 요인이³³⁾ 관광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³⁴⁾ 국내 관광객의 위험지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잠재 관광객들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다소 무감각한 측면이 있으며,³⁵⁾ 관광비용에 대한 지식 부족과 북한 관광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는 측면이 있어 사회·안전적, 경제적 위험지각이 관광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잠재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관광을 떠났을 때 먹게 되는 음식이나 잠자리, 쇼핑과 편의시설과 같은 직접적으로 접하게 될 관광 기능적 차원의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시 자신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 발생 가능한 재해, 질병 등 신체적 차원의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관광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2) 김홍범·윤진영·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pp. 67~81;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137~152.;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33) 곽효용·김형곤·이수진, “친숙도가 선호도, 위험지각,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pp. 378~388; 김홍범·윤진영·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pp. 67~81;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pp.137~152.;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34) 류인평·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 149~168.

35) 김현철, “해외여행 떠나자 공항 북적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소 전쟁 위험 글씨요.” 『경남매일』 2013년 4월 14일.

다소 막연한 감이 있는 사항 보다는 관광을 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측면이 관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관광 위험지각이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Beta	t	Sig.	
관광의도 (Model : R2=.091 F=7.428 p=.000***)				
위험	사회·안전적 위험	.037	.638	.524
	기능적 위험	-.195	-3.545	.000***
지각	신체적 위험	-.161	-2.808	.005**
	경제적 위험	.035	.650	.516

주: *p < .05, **p < .01, ***p < .001

4. 관광 위험지각, 관광의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 분석결과

금강산 관광경험 여부에 따라 관광 위험지각 및 관광의도는 〈표 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광 유경험자가 방문 지역에 대한 친숙도가 높으며³⁶⁾, 친숙도는 위험지각을 낮춘다는³⁷⁾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관광경험이 있는 경우 관광위험을 낮게 인지하고, 관광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지적할만하다.

36) Milman, Ady and Abraham Pizam, "The Role of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a Destination: The Central Florida Ca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3, 1995, pp. 21~27.

37) 곽효용·김형곤·이수진, "친숙도가 선호도, 위험지각,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pp. 378~388.

〈표 5〉 금강산 관광경험 여부에 따른 관광 위험지각, 관광의도 차이분석결과

관광경험	관광위험지각				관광의도
	사회·안전적	기능적	신체적	경제적	
있다	3.733	3.550	2.870	3.180	3.320
없다	3.767	3.630	2.914	3.291	2.976
t	-.244	-.498	-.282	-.791	1.350
p	.807	.619	.778	.429	.189

통일 및 북한관련 수업 수강경험 여부에 따라 관광 위험지각 및 관광의도는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오히려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지각은 더 높고, 관광의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방문 경험이 없더라도 방문 목적지에 대한 보다 많은 사전 지식이 친숙도를 형성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³⁸⁾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단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아도,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관광위험을 지각하고 관광의도는 더 낮게 나타난 사항은 지적할만하다. 이는 오히려 관련 지식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높은 위험을 지각한다는 것으로, 수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위협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통일·북한관련 수업 수강경험 여부에 따른 관광위험인지, 관광의도 차이분석결과

수강경험	관광위험지각				관광의도
	사회·안전적	기능적	신체적	경제적	
있다	3.732	3.351	3.840	3.840	2.957
없다	3.602	3.270	3.751	3.744	3.006
t	1.276	.901	.964	1.034	-.372
p	.203	.368	.336	.302	.711

38) Baloglu, Seyhmus, "Image Variations of Turkey by Familiarity Index: Informational and Experiential Dimension," *Tourism Management*, vol. 22, 2001, pp. 127~133.

성별에 따라 관광 위험지각 및 관광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7>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관광 위험지각 및 관광의도 차이분석결과

성별	관광위험지각				관광의도
	사회·안전적	기능적	신체적	경제적	
여자	3.783	3.633	2.938	3.243	3.038
남자	3.731	3.609	2.859	3.367	2.917
t	.679	.284	.936	-1.722	1.131
p	.498	.777	.350	.116	.259

학년에 따른 관광 위험인지 및 관광의도도 <표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학년 따른 관광위험지각 및 관광의도 차이분석결과

학년	관광위험지각				관광의도
	사회·안전적	기능적	신체적	경제적	
1학년	3.690	3.663	2.896	3.164	2.859
2학년	3.768	3.693	2.964	3.301	3.105
3학년	3.767	3.486	2.932	3.423	2.989
4학년	3.841	3.621	2.821	3.245	2.988
F	.735	1.360	.649	2.330	1.103
p	.532	.255	.584	.074	.348

한편, 대학전공에 따른 관광 위험지각에는 <표 9>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광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과계열 대학생들이 관광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도 문과계열 대학생들이 신체적 위험 요인을 제외하고 좀 더 높은 위험을 지각하지만 오히려 관광의도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표 9〉 대학전공에 따른 관광위험지각 및 관광의도 차이분석결과

학과	관광위험지각				관광의도
	사회·안전적	기능적	신체적	경제적	
문과계열	3.778	3.627	2.887	3.306	3.065
이과계열	3.728	3.618	2.981	3.224	2.806
t	.614	.099	-1.064	.949	2.264
p	.540	.921	.289	.344	.024**

주: **p < .01

이렇듯 성별, 학년, 대학전공에 따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수준에 차이가 없지만, 유독 대학전공에 있어 문과계열 전공자들이 관광의도가 높은 것은 실제 학습영역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가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되었다. 성공적인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증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주요 잠재 관광객인 국민이 지각하는 관광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 시키고, 이들을 실질적인 관광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강산 잠재 관광객이

인지하는 위험지각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위험지각요인이 실질적인 금강산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하였다. 나아가 위험지각요인과 관광의도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금강산 관광의 위험지각 요인은 사회·안전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금강산 관광 위험지각 요인 중 기능적 위험과 신체적 위험은 금강산 관광의도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안전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요인은 금강산 관광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강산 관광경험, 통일 및 북한관련 수업 수강경험 여부, 성별, 학년에 따라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전공에 따른 관광 위험지각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광의도는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과계열 전공자들이 이과계열 전공자들보다 관광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요인을 도출하여 보았다는 것이다. 금강산은 해외는 아니지만 분단 지역인 북한에 위치하는 유명 관광지로 한국과는 특수적 관계에 있는 지역이다. 관광안전과 관련된 사건으로 6여 년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위협적 사건으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위협적 지각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 관계에 놓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 사용된 위험지각요인의 유용성을 검증해 보고, 특징적 사항을 지적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출한 위험지각요인과 관광의도와의 관계를 증명해 봄으

로써,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주장되고 있는 관계의 일반화에 기인한다. 나아가 일반적 특성과 위험지각, 관광의도 간 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세부적 관계를 검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되었을 때, 관광객의 위험 지각 수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잠재 관광객이 가장 높게 지각하는 사회·안전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업적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체계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사회,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고 언어적, 행동적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시키기보다 관광객 입장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충분히 지각하고 관광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인 관광이 되기 위해 되도록 관광경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관광지에서의 경비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 하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북한 관광이라는 특수성 부각 이전에 관광 상품으로써 기본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금강산 관광의 기능적 위험과 신체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 시 기본 요구 시설인 숙박, 식사, 쇼핑, 편의시설을 관광객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북한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식사 및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 시 관광객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자연재해나 전염성 질병과 같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뉴얼 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강산 관광의 위험지각과 관광의도를 조사함에 있어 충남 소재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위험지각과 관광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나 일반적 특성만을 고려해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계층을 보다 다양화 하고,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결과적 변수로 단순한 관광의도가 아닌 실질적 관광행동을 조사하고, 이러한 관광행동이 북한이나 통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민족 통합적 차원의 기능적 가치를 증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곡효용 · 김형곤 · 이수진, “친숙도가 선호도, 위험지각,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김기동, “금강산 관광 안전비상.” 『세계일보』 2007년 10월 16일.

김성우,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이용한 관광지 매력성 평가: 금강산 관광을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0권 제1호, 2008.

김홍범 · 윤진영 · 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2.

김현지, “해외여행 구매의도 및 구매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속성 및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2.

김현철, “해외여행 떠나자 공항 복직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소전쟁 위험 글썩요.” 『경남매일』 2013년 4월 14일.

노정희, “관광목적지로서의 지각된 위험과 관광지 이미지가 한국 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 2008.

류인평 · 김영주, “관광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박민식, “금강산 관광 사건 · 사고들.” 『한국일보』 2008년 7월 12일.

심규석, “금강산 관광 10년 사건, 사고 13건..23명 사망.” 『연합뉴스』 2008년 11월 16일.

이해정, “현안과 과제: 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현대경제연구원』 14권 제10호, 2014.

현대아산 홈페이지 <http://www.hyundai-asan.com/> (검색일 : 2014.6.1)

Baloglu, Seyhmus, “Image Variations of Turkey by Familiarity Index: Informational and Experiential Dimension.” *Tourism Management*, vol. 22, 2001.

Battman James R., “Perceived Risk and its Components: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0, no.2, 1973.

Bauer, Raymond A.,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In Hancock, R.S.(ed.), *Dynamic Marketing for a Changing World*.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Chicago, 1960.

Boksberger, Philipp E., Thomas Bieger and Christian Laesser, “Multidimensional

- Analysis of Perceived Risk in Commercial Air Travel.” *Air Transport Management*, vol.13, 2007.
- Butler, Richard W. and Baodi Mao, “Conceptu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ourism between Partitioned State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1, no.1, 1996.
- Cox, Donald F. and Stuart U. Rich, “Perceived Risk and Consumer Decision-making: The Case of Telephone Shopp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 no.4, 1964.
- Day, George S., “A Two Dimensional concept of Brand Loyalt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9, 1969.
- Kotler, Philip, John Bowen and James Makens,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2e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Inc. 1999.
- Jang, SooCheong, Billy Bai, Clark Hu and Chi-Mei Emily Wu, “Affect, Travel Motivation, and Travel Intention: a Senior Market.”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 33, no.1, 2009.
- Larsen, Svein, Torvald Øgaard and Wibecke Brun, “Backpackers and Mainstreamers: Realities and Myth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8, no.2, 2011.
- Law, Rob, “The Perceived Impact of Risks on Travel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8, 2006.
- Lee, Choong-Ki, Yoo-Shik Yoon and Seung-Kon Le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s: The Case of the Korean DMZ.” *Tourism Management*, vol.28, 2007.
- Lepp, Andrew and Heather Gibson, “Tourist Roles, Perceived Risk and Internation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0, no.3, 2003.
- Lepp, Andrew, Heather Gibson and Charles Lane, “Image and Perceived Risk: A Study of Uganda and Its Official Tourism Website.” *Tourism Management*, vol. 32, 2011.
- Milman, Ady and Abraham Pizam, “The Role of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a Destination: The Central Florida Ca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3, 1995.

ABSTRACT

A Study on Perceived Travel Risk
and Travel Intention to Mt. Kumgang

Kim, Nan-Young (Sunmoon University) · Youn Hwang (Sunmoon University)

Resumption of Mt. Keumgang tourism can be a cornerstone for relax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successful resumption of Mt. Keumgang tourism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ourists enjoy the tour with a sense of security. It is also necessary to minimize dangerous elements opposed to Mt. Keumgang tours that potential tourists could perceive and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tour.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reefold: 1) to identify perceived travel risk; 2)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ceived risk types on travel intention; 3)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travel risk types and travel inten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four perceived risk factors such as socio-security, functional, economic, physical risks were identified. The perception towards functional risk and physical risk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ravel intentions.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perceived risk dimension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ravel inten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major.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study findings.

Keywords : Mt. Kumgang, Perceived Travel Risk, Travel Intention

투고일: 2014년 6월 29일, 심사일: 2014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3일